철학 실천 프로젝트 공모전

20250661
철학과 권오성

공자님처럼 살아보기!

"태양을 향해 쏜 화살은
버드나무를 향해 쏜 화살보다 멀리 간다"

목차

01 주제 선정 이유

02 체크리스트

03 느낀점

주제 선정 이유

오늘의 삶 속에서 철학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철학자들은 자신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옴

그 중 공자님께서 가장 치열하게 사셨다고 느낌 → 태양을 향해 쏜 화살은 버드나무를 향해 쏜 화살보다 멀리 가기에, 공자님처럼 살고자 하면, 나도 철학을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성인은 못되어도, 범부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체크리스트

☐ 부모님께 안부인사 드리는 빈도 늘리기

☐ 신체를 단련하기

☐ 벗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측은지심&실천)

☐ 삶의 루틴을 만들고, 지키기 (공자의 삶의 태도)

☐ 뱉은 말에 책임을 지기 (언행일치)

☐ 공부를 하는 태도 교정하기

☐ 벗을 공경으로 대하기

☐ 남의 마음을 이해하기

☐ 사람의 말을 듣는 연습 하기

☐ 절제력 높이기

☐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기

☐ 도덕적인 행동들 습관화 하기.

체크리스트

☐ 부모님께 안부인사 드리는 빈도 늘리기

☐ 신체를 단련하기

☐ 벗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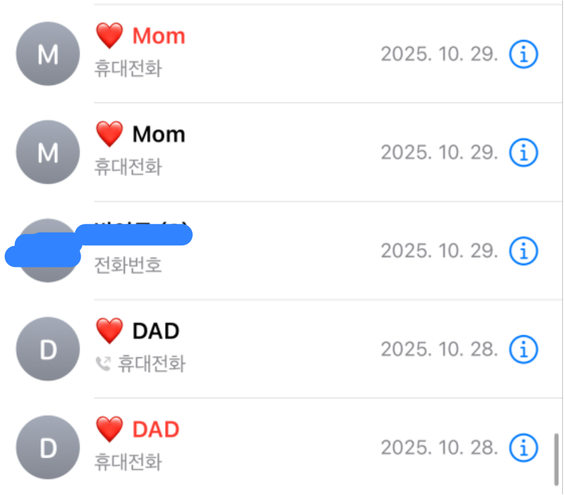
☐ 벗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완료)

→ 감사 편지를 보냄 + 말로 표현 많이 함



☐ 신체를 단련하기 (완료)

→ 중앙대 검도 동아리에 들어가 매주 월, 수 3시간씩 신체를 꾸준히 단련함
→ 정신 수양에 도움이 됨.
→ 매번 150번 정도 머리치기를 하기때문에 검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정신통일을 경험함



☐ 부모님께 안부인사 드리는 빈도 늘리기 (완료)

→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는 빈도를 늘렸음

→ 효도하는 느낌도 들고 목소리 들으면 마음이 따듯해짐

→ 다만, 너무 자주 하니까 부모님이 귀찮아하심을 느낌.

체크리스트

☐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측은지심&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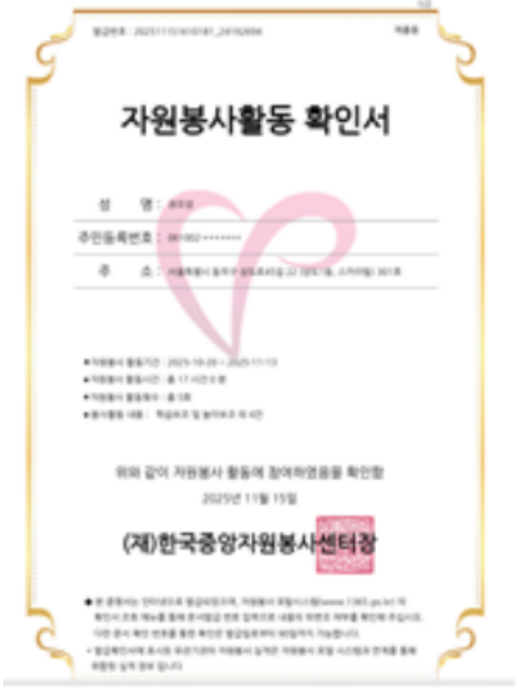
☐ 뱉은 말에 책임을 지기 (언행일치)

☐ 도덕적인 행동들 습관화 하기



☐ 뱉은 말에 책임을 지기 (언행일치)

→ 시험공부와 봉사활동 및 다양한 과제들로 인해 공연 준비를 할 시간이 부족했지만,
꼭 완수하겠다고 선배들께 약속한 이상 손에 피가 나도록 연습하였으며 결국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침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재)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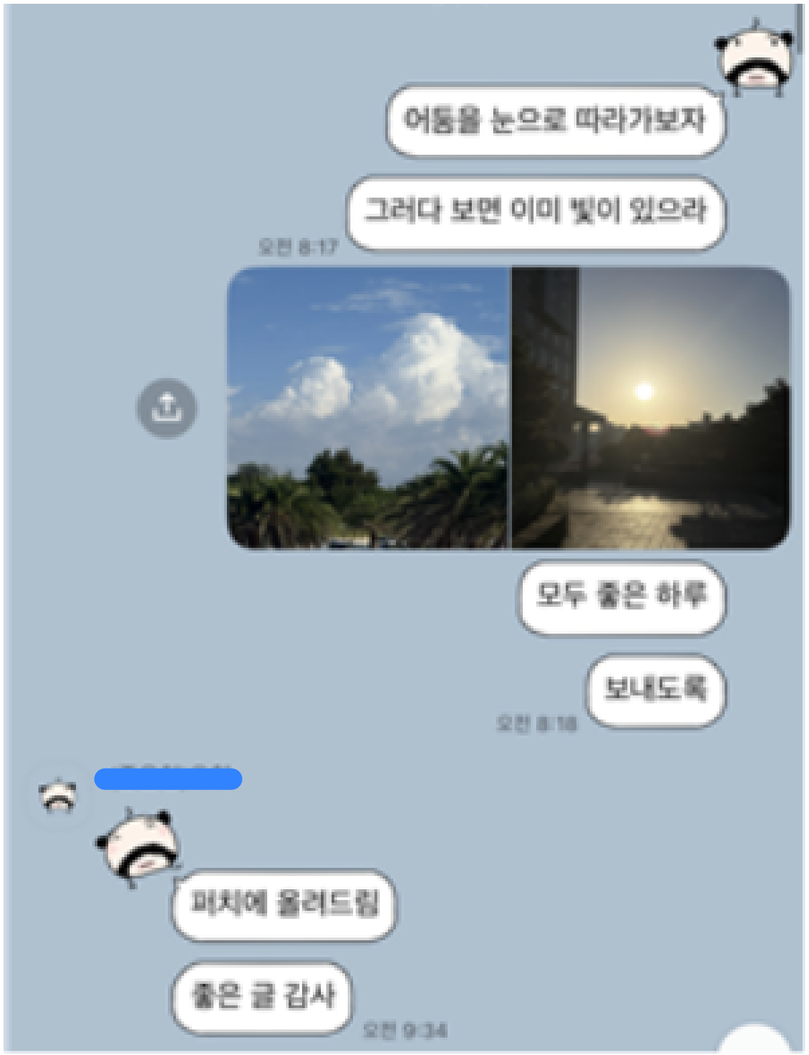
☐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측은지심&실천) (완료)

☐ 도덕적인 행동들 습관화 하기. (완료)

→ 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고 판단, 자원봉사를 시작함. 매주 정기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현재까지 17시간의 자원봉사를 완수함

→ 수업과 병행하여 짬 날때마다 자원봉사를 하러가다 보니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웃는 모습, 어르신들이 고마워 해주시는 모습이 나의 활동 원동력이 됨.

체크리스트





☐ 삶의 루틴을 만들고, 지키기 (완료)
(공자의 삶의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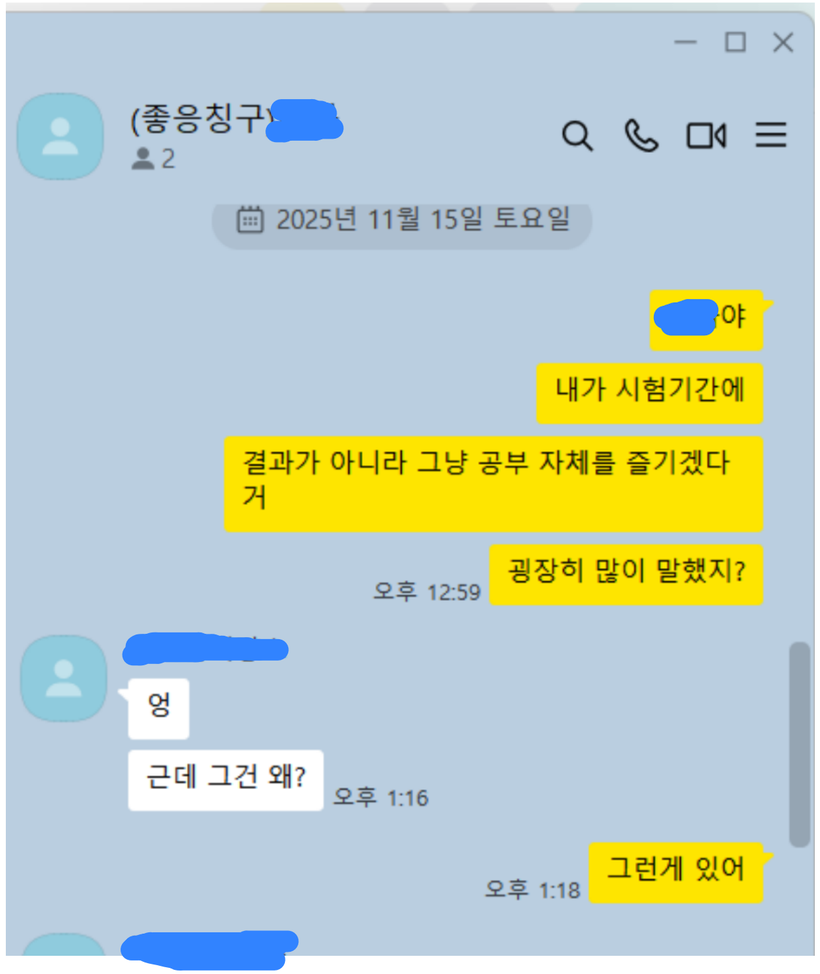
☐ 벗을 공경으로 대하기(완료)

☐ 절제력 높이기 (완료)

→ 매일 6시에 기상하여, 냉장고에 준비해둔 500ml 물을 한번에 다 마시고, 바로 샤워 후 학교로 출발하여 공부를 하자는 스스로의 루틴을 세웠다.(또한 이를 10/31 까지 지켰다. 또한 공부를 함에 있어서 항상 정신을 맑게 하기위해 핸드폰 사용을 극단적으로 줄이기 시작함

→ 벗들에게 매일 아침의 사진과 좋은 글귀를 보내며 공경하고 애정함

체크리스트



☐ 공부를 하는 태도 교정하기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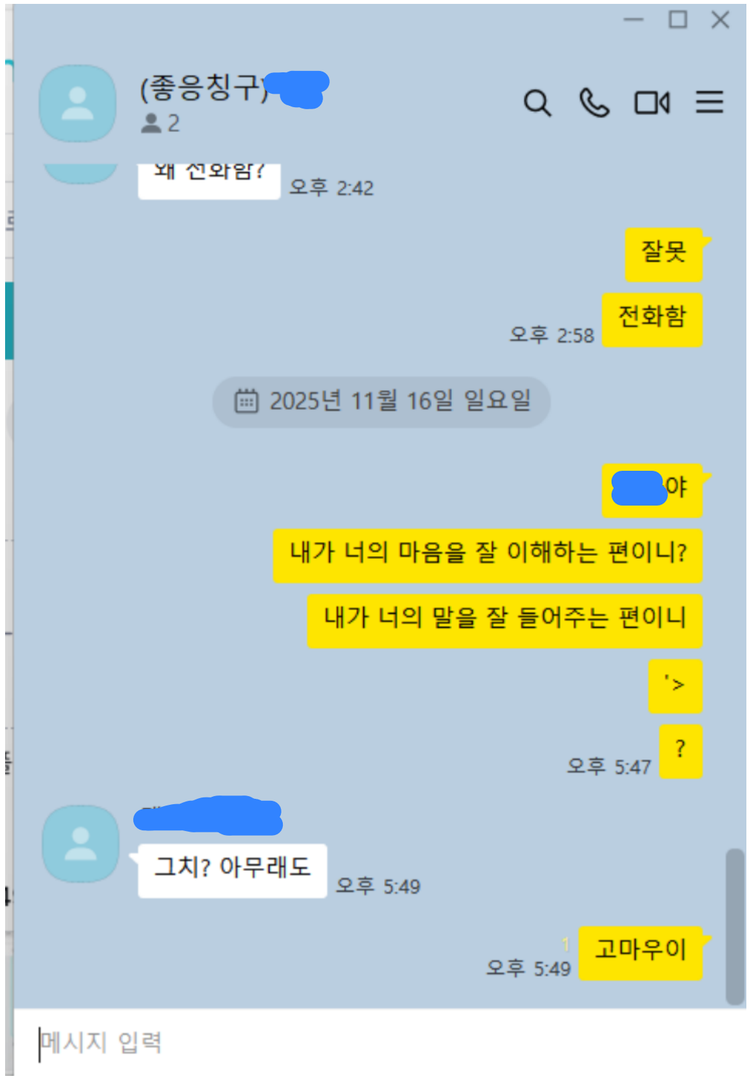
☐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기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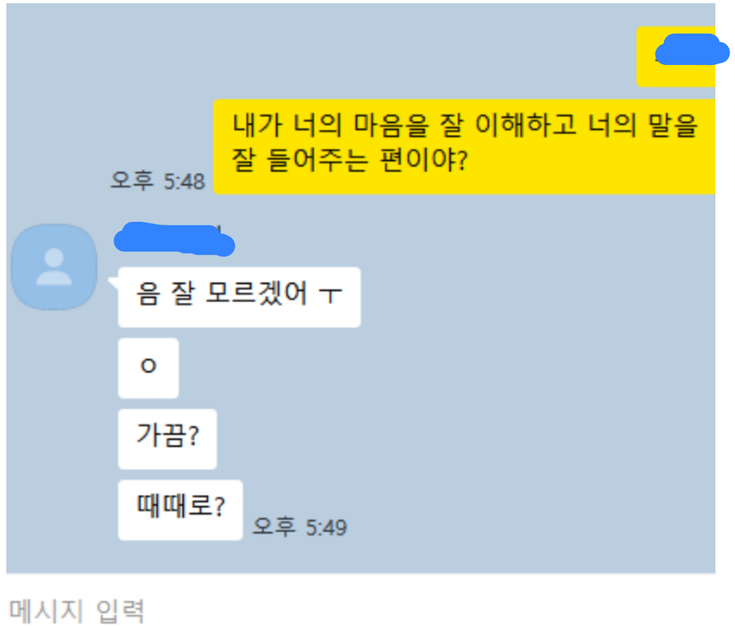
→ 공부를 할때도 습관처럼 결과가 아니라 공부 자체를 즐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럴 것이라고 같이 공부하던 친구에게 정말 많이 말했다.

그 결과 정말로 공부가 즐거워졌고, 결과보다 공부 자체에 집중하니 잡생각도 많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 또한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를 이겨내는 방법과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면 시야가 넓어짐을 깨달으면서 삶의 태도또한 한숨 돌린 느낌을 받았다.

체크리스트





☐ 남의 마음을 이해하기 (진행중)

☐ 사람의 말을 듣는 연습 하기 (진행중)

→ 대부분 그렇다고 해주지만 몇몇 친구는 가끔, 때때로 라고 하는 것을 보아 아직 군자의 길은 멀었음을 깨달음.

→ 계속 노력을 진행할 예정.

실천



공자님처럼 살기로 마음을 먹으니
굉장히 바빠졌음

하지만 지나고 보니 몸에서 체화된
감각들이 많음

일부 도덕적 노력들은 습관화되어
자연스럽게 나오는 등

실천이 이해로 이어지는 효과 또한
느낄 수 있었음.

느낀점

비록 한달이지만, 굉장히 통제된 삶을 살아서 신경이 많이 쓰였음. 언행또한 조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내, 외적으로 스스로를 통제하기 시작하니, 주체성을 잡은듯 하여 뿌듯하였음.

1. 자기 통제적 삶이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느낌
2. 타인과 관련된 항목의 경우, 내 생각보다 내가 타인에게 잘 못해준 부분들이 눈에 보임 부끄러움을 느꼈으며 더 노력해 야함을 느낌.
3. 단지 공모전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이런 통제적 삶을 살고자 마음먹음.